

윤석열 정부의 3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

□ 토론자 : 이승훈 해우소포럼 회장

1. 주요 국정과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외

- 국정과제는 새 정부 정책 및 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중요자료
- 67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이 부재는 국정운영의 심각한 문제
-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정과제 추진과 대비

2.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

- 문재인 정부에서 있던 자영업비서관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
-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차관 조차도 없음
-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 하기에는 정책의 범위가 넓음
-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수립과 집행 차원에서 속도 · 방향성 심각한 우려

3. 공약 1호 -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공약 파기

- 재난지원금 최소 1천만원 이상으로 약속, 결국 6백만원 지급으로 후퇴
-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재난지원금 별도 지급 약속, '손실보전금' 통합
-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인 전시업,여행업,사진업 등에 대한 해결책 부재